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 변인

A Study on the and Its Related Variables Social Distance of Adolescent of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Areas

정진환* · 이창식**

Jin Hwan Jeong · Chang Seek Lee

Abstract

As multicultural family gradually increased, our society is changing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with social distance of adolescent of multicultural family. The participants were 568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S city, D and H county in Chungnam province. Data for the study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 comparison,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gender, school record, and place of residenc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degree of intimacy between general adolescents. Thir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lower self-esteem was, the lower value orientation was, the lower cultural diversity was; the higher social distance is. Accordingly, social distance for adolescents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value orientation, and cultural diversity. Fourth, variables affecting social distance were gender, school record, family composition, place of residence, friend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e-mail: jijus25@hanmail.net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csl@hanseo.ac.kr

from multicultural family, intention to be a friend, experience of overseas travel, self-esteem, value orientation, cultural diversity. Among them, intention to be a friend was a main predictor.

주요어(key words): 다문화가정 청소년(Adolescent of Multicultural Family),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1. 서론

한국사회의 인적이동의 변화는 국내인구의 농촌, 도시의 지역 간의 이주에서 국가 간의 이주로 변화하면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국내에 유입된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2001년에는 14,523건이었던 국제결혼이 2008년에는 36,2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2009).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자녀수 또한 증가하게 되어 2008년에는 58,000명에 이를 정도로 자녀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취학전아동인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57.1%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이러한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취학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며, 실제 조사에서도 취학아동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모에 의해서 교육이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단지 인구 구성이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이상의 다차원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로 이주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력 수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경제에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가장 심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유난영, 2008).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감인데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 방문객으로 높게 찬성하는 반면, 자녀의 배우자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정기선,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족의 자녀들을 ‘한국인’ 또는 ‘한민족’으로 보는가에 대한 일반인, 대학생, 그리고 결혼이민자 부모들의 응답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한국인인 동시에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은 반면, 한국인들은 그러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황정미, 2007). 이와 같이 현재까지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용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개념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개념이나 인식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연구로 박현정(2009), 성정희(2009), 이지훈(2002) 등의 연구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연구는 이하령(2009), 설동훈(200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감의 연구는 유난영(2008), 김희자(2008)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이론적 정립을 위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또한 자아존중감 역시 가족과 관련

된 연구(오승환, 2001; 이애재, 2000; 박미자, 2004), 비행청소년 연구(안차수, 2008; 우형진, 2007; 조윤주, 2010; Edwards, 1996) 등이 진행되었으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자아존중감 연구는 유지인 & 최범식(2009), 박수정 & 최연실(2009) 등이 진행되었으나, 미술 치료, 심상치료 등의 치료의 개념으로 연구되어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 모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가치지향성은 주로 경제 부문(이승영 & 최인현, 2010; 이정우, 이정숙 & 박미금, 1998), 개인적 가치(정우영, 2006; 유진 & 정우영, 2005; 이형룡, 김민선, & 이원옥, 2006), 한국문화의 가치(한세희, 2003)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청소년과의 관계된 연구는 무후한 상태이며, 문화의 다양성은 주로 정책적인 부분(이반 베르니에, 2002; 이산호, 2009)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관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정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가정이란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정을 지칭한다. 다문화가정은 학술적 용어, 법률적 용어나 정의는 아니다. 그 동안 이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어 온 국제결혼가정은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합된 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성연 & 최유, 2006).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형성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 당시 한국 주둔 미군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을 시작으로 1990년대 농촌 총각 결혼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를 통해 대규모 집단 국제결혼이 성사되면서 활성화되었다(송미경 외, 2007).

2009년 국제결혼은 총 33,300건으로 전체 결혼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경우는 총 28,163건으로 국제결혼 중 75.5%를 차지하였고, 전체 결혼에서는 8.1%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꾸준히 증가한 중국 동포의 유입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인해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증가가 이뤄졌으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산업 연수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왔다(통계청, 2009).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대부분 동북아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의 조선족이 32,46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국제결혼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자녀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

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18,778명으로 2007년도의 13,445명에 비해 39% 정도 증가하였다. 2006년도에 비하면 134%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83.4%, 중학교 12.1%, 고등학교 4.5%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전남, 전북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학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2.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나 주관적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송관재, 김범준, 홍영오, & 이훈구, 1997). 이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일반적으로 Simmel(1890)의 연구로부터 비롯된다. Simmel(1890)은 집단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서 각 구성원이 직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어려움에 관해 연구했으며, 이것이 이후 Park(1924)에 의해 미국 사회학에 도입되면서 사회적 거리감의 개념이 형성되었다(김미옥, 2002).

최초로 사회적 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던 Bogadus(1928)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의 상이한 정도로 개념화된다. 이 개념화는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사회적 거리 개념은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사회적 거리감이 갖는 이와

같은 다차원적 성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박현정, 2009).

한편, Kadushin(1962)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치우친 기존의 정의 방식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개별 인간보다는 사회적 지위 간 상호작용의 비율과 같은 객관적 준거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는 비의식적 차원의 사회구조적 개념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Kadushin(1962)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사회관계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회적 거리의 개념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평가보다는 구체적 지표로 확인될 수 있을 때 보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박현정, 2009).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분석한 결과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 차이는 인구학적 특징이나 가족적 배경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스스로 진보적이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적게 느끼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 대부분이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취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인지적 차원에서의 평가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과 국내 노동자들 사이의 관계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위치라는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이 그들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타인종·타민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배타성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제시하였다(유난영, 2008).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단일민족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

는 현시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 사회적 거리감 관련 변인

Hatfield와 Stanberg는 친밀감이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방식 간에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가 있는 부분을 탐색하여 타인과 가까워지려고 시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조윤주, 2006). 친밀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친밀감의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자녀의 낭만적 이성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2005; 차정화, 2002; 전영주, 2002). 더욱이 Benson, Larson, Wilson, & Demo(199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 이성교제에서 불안이 근원가족의 융합과 통제를 중재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친밀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러한 친밀감은 사회적 거리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자신감,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으며 이상은 높으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자기의 행동에 있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

울 및 불안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고립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높은 이상을 갖고 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박선아, 2008).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를 관련변인으로 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대인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양지희, 2004).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생각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형성되어 있어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긍정적일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거리감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가치지향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치는 행위의 이용 가능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가치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사회화를 통한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화, 사회구조 연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는 개념이다(임희섭, 1994).

가치지향성의 기존 연구들에서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는 연령이 적을수록 근대적이었고, 30세 이하의 주부 집단이 물질주의 가치성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지배론적, 자연정복적, 목표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박미금 & 장명옥, 1985; 백경미 & 이기춘, 1993; 김연화, 1986; 홍은실, 1990).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지배론적 가치관이 우세하였고, 대학 교육환경은 일반적으로 근대성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며 혁신지향성, 개인지향성, 현재지향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이정우, 1980; 권태환, 1986).

위의 연구들과 가치지향성의 개념에 근거하면 가치는 개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측면에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은 다양한 국적, 다양한 장르, 다양한 수준, 규모, 형식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풍요로운 문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전의 문화적 예외의 개념보다는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모호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약자의 문화가 점차 사라져 버리거나 자유로운 문화적 표현이 방해 받는 것을 지양하여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이승미, 2006).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승미(2006), 임이숙(2005)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두 연구 모두 질적 연구로 진행되어 뚜렷한 통계치를 나타낸 기존의 연구는 무후한 상태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과 인식을 하는 것인데, 사회적 거리감은 이러한 수용과 인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의 다양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과의 관계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농촌 지역인 S시, D군, T군에 거주하는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부실하고 누락된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남학생 326부, 여학생 242부로 전체 56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7.4%, 여학생이 42.6%로 상대적으로 남학생의 수가 많았으며, 연령에서는 14세 이하가 57.0%, 15세 18.3%, 16세 이상이 24.3%로 14세 이하의 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성적은 중인 학생들이 54.0%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하인 학생들이 28.5%, 상인 학생들이 16.4% 순으로 분포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 31.2%, 불교 16.7%, 천주교 5.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1.6%, 중소도시 41.9%, 농어촌 56.0%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구 분	특 성	N(%)	구 분	특 성	N(%)	
성 별	남자	326(57.4)	종 교	불교	95(16.7)	
	여자	242(42.6)		기독교	177(31.2)	
연 령	14세 이하	324(57.0)		천주교	33(5.8)	
	15세	104(18.3)		무교	250(44.0)	
	16세 이상	138(24.3)		기타	10(1.8)	
	무응답	2(0.4)		무응답	3(0.5)	
성 적	상	93(16.4)		거주지	대도시	9(1.6)
	중	307(54.0)			중소도시	238(41.9)
	하	162(28.5)			농어촌	318(56.0)
	무응답	6(1.1)			무응답	3(0.5)

3.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S시의 청소년문화의 집, 중학교 2개교와 D군의 청소년문화의 집, 중학교 2개교, H군의 중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공문과 직접방문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담임교사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직접 회수하거나, 교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시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3.3. 조사도구

3.3.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 문항은 척도화 되지 않은 문항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정기적인 만남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친구여부,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교제의사 여부, 해외여행여부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위의 4문항은 다문화가정청소년과의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설정한 문항으로 정기적인 만남여부를 제외한 세 문항에서는 '있다', '없다'의 답변으로 친밀감을 파악하였으며, 정기적인 만남여부는 일주일에서 일 년까지의 정기적인 만남횟수로 친밀감을 파악하였다.

3.3.2.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Bogardus(1928)의 사회적 거리 척도를 조사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이 척도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긍정의 15문항이 구성되었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7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 (RSES)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청소년용으로 5개의 긍정적 문항과 5개의 부정적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23으로 나타났다.

3.3.4. 가치지향성

가치지향성 척도는 인태정(2009)이 사용한 Schwarts(1992)의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가치, 권력 가치 및 자기지도 가치(개인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총 13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보편주의 가치 .585, 권력 가치 .729, 자기주도 가치는 .814로 나타났다.

3.3.5.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황정미 외(2007)의 연구지표를 원용하여 사용한 인태정의 문화의 다양성 태도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화의 다양성 태도에 대한 긍정문항 6문항과 부정문항 1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을 실시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

며,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707을 보였다.

3.3.6.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기타 문항은 성별, 연령, 학교성적, 종교, 거주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항 5문항과 동거유형, 부모의 학력, 부모직업, 소득수준 등의 가족관계적 특성 4문항으로 총 9문항을 구성하였다.

3.4. 자료 처리방법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PC+ 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회적 거리감,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관계적 특성,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하기 위해 Duncan 및 Dunnett (T3), LSD, Tukey를 활용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및 ANOVA와 사후검정 Duncan/Dunnett(T3)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성별과 성적, 거주지에 따라서는 유의성이 있는 반면, 연령과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은 '하'로 응답한 집단이 '중', '상'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보다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차이 비교

구 분		N	M	SD	t값/F	Duncan/T3
성별	남	326	3.0466	.81299	4.912***	
	여	242	2.7177	.75573		
연령	14세 이하(A)	324	2.9176	.77577	1.280	NS
	15세(B)	104	2.7968	.91078		
	16세 이상(C)	138	2.9584	.79122		
	합계	566	2.9053	.80624		
성적	하	93	3.2535	.82242	12.968***	하>상=중
	중	307	2.8960	.81094		
	상	162	2.7328	.72198		
	합계	562	2.9081	.80495		
종교	불교	95	2.7954	.81449	1.332	NS
	기독교	177	2.8608	.82296		
	천주교	33	2.9414	.82598		

종교	없음	250	2.9860	.78789	1.332	NS
	기타	10	2.7333	.80781		
	합계	565	2.9077	.80699		
거주지	중소도시	238	3.0448	.78913	3.751***	
	농어촌	318	2.7909	.79060		

***p<.001

4.2.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가정 친구와의 친밀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 및 사후검정 Duncan/Dunnett(T3)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만남정도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반면, 다문화친구 유무와 다문화청소년과 친구가 될 의사여부, 그리고 해외여행의 경험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낮았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친구가 될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표 3>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차이 비교

구 분		N	M	SD	t값/F	Duncan/T3
다문화친구 유무	유	96	2.5208	.77565	-5.206***	
	무	457	2.9802	.78810		
만남 정도	자주 만난다	42	2.8350	.92728	1.287	NS
	매일	30	2.5019	.85052		
	가끔 만난다	39	2.6855	.81756		
	합계	11	2.6924	.87166		

다문화청소년과 친구가 될 의사여부	유	463	2.7467	.72198	-11.290***	
	무	95	3.6690	.74147		
해외여행 유무	유	165	2.7153	.81679	-3.660***	
	무	403	2.9848	.78792		

*** p<.001

4.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의 변인들이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계에서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23에서 .376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문화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적 거리감,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 간 상관분석

	사회적 거리감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
사회적 거리감	1			
자아존중감	-.283***	1		
가치지향성	-.325***	.273***	1	
문화의 다양성	-.243***	.123**	.376***	1

** p<.01, *** p<.001

4.4.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이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Leverage 값, 공차한계(Tolerance), 상승변량(VIF) 값을 산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 값은 1.713으로 정상범위(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2.340~36.725, 0.000~0.044,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4~0.070으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0.792~0.956, 상승변량(VIF)은 1.047~1.263으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 친구유무, 친구가 될 의사, 해외여행 유무, 거주지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적은 하, 중, 상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인의 투입은 Enter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투입된 변인은 사회적 거리감 전체 설명변량 중 36.3%를 설명하였다. 투입한 독립변인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친구가 될 의사, 자아존중감, 성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친구의 유무, 가치지향성, 해외여행 유무, 문화의 다양성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거주지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성이 있는 변인 중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로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친구가 될 의사 여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은 남자일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 친구가 없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친구가 될 의사가 없을수록,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문화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수	B	표준오차	β
성별(남자=1)	.258	.063	.161***
성적	-.085	.046	-.070
거주지(중소도시=1)	.109	.062	.068
친구유무(유=1)	-.324	.079	-.149***
친구가 될 의사(유=1)	-.698	.080	-.323***
해외여행(유=1)	-.185	.063	-.106**
자아존중감	-.213	.046	-.174***
가치지향성	-.224	.060	-.147**
문화의 다양성	-.115	.050	-.088*
F	32.667***		
R ²	.363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청소년들이 느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연

구하였다. 특히, 일반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변인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다문화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관계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성적, 거주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고, 가족관계적 특성에서는 가족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보다 남성이 사회적 거리감이 더 높았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농어촌보다는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다.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김희자(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관계적 특성이 사회적 거리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는 한국청소년개발원(2002), 고아라(2005), 이하령(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원인은 농촌과 도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이 농어촌지역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은 다문화가정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직접 만남을 통해 거리감을 줄였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친밀감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만남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 친구가 없을 경

우,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경우,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를 접해본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접해보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감과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상관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이 모두 사회적 거리감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문화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의 세 변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의 해소를 위해서는 나머지 세 변인의 발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유난영(2008)의 연구에서는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연구한 박현정(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의 고정관념과 관련된 변인들과 청소년기 특성과 맞는 더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감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성별, 다문화가정 친구유무, 친구가 될 의사, 해외여행 유무,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은 사회적 거리감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가족관계적 특성을 제외한 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정의 친밀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구가 있거나,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청소년들은 비교적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으며,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견해를 넓히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들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관계적 특성과 다문화가정의 친밀성을 제외한 변인에서는 자아존중감,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획일화된 학교교육과, 가정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많이 결정되었다. 자아존중감과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캠프 등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 및 가치지향성, 문화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반가정에서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정을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잠깐 관심과 애정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권태환. (1986). 대학생들의 가치의식. *사회과학연구*, 9(1), 110-138.
- 강민주. (1993).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석. (2009).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2, 217-256.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란. (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 (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 99-126.
- 김성남. (2003). 에니어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1986). 도시 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미. (2008). 대학생의 가치관이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춘례. (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치영. (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 성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자. (2008). 외국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 9(1), 255-282.
- 문성호. (2009). 고등학생의 가치관 명료도와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금, & 장명옥. (1985).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1-13.
- 박윤경. (2002).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 (2008).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원. (2009). 기업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가치지향성과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적 성숙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동훈, &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4(2), 109-133.
-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새로운 “소수자집단”에 대한 사회적 설명. *수선사학회*, 34(-), 53-77.
- 송관재, 이재창, & 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7(1), 119-136.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20(2), 497-517.
- 송인섭. (1996). 자아개념의 교육심리학적 의미. *교육심리연구*, 10(1), 1-24.
- 송현중. (1993).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귀인모형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어옥자. (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난영.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김포시 일반 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 (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청소년학연구*, 1(1), 17-26.
- 이민영. (200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있어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상관 관계와 통합여부에 따른 차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언, & 최유. (2006).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이승미. (2006). 프랑스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연구—‘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란. (2003). 가치관과 성격특성에 따른 한국인의 생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태정. (2009). 다문화 사회지향을 위한 인종의 사회적 거리감과 문화의 다양성태도 연구. *국제지역연구*, 13(2), 339-369.

- 임이숙. (2005). 문화다양성 시대의 음악교육과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연. (2001).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치관과 의복행동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정기원. (2006). 부산지역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아동과 권리, 10(2), 185-211.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찬석. (1997).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경미한 비행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희영.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숙.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범주. (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분석.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lk, J. H. (1985). Materialism :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80.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Erikson, E. H. (1963). *Childhood & society*. New York: Norton.
- Ford, M. 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Harter, S. (1990).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491.
- Laumann, F. O. (1965). Subjective social distance and urban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1, July, 23-36.
- Nottelma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terman, A. S. (199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Westie, F. R. (1952). Negro-white status differentials and social dist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5), 550-558.

논문투고일: 2011. 1. 28

1차수정일: 2011. 3. 17

게재확정일: 2011. 3. 22